

감성과 인식의 시대

The Age of Sympathy and Recognition

김병윤 / 백제예술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Kim Byung-Yoon

지난 80년대가 끝날 즈음에 다가오는 90년대는 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으로, 또한 자성과 반성으로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려는 청량한 목소리들이 들려주는 기대와 꿈으로 가득하였다. 이미 주요한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게 되고, 나름대로 한국적 지역성 또는 정체성이라고 해도 좋은 측면의 구현이 이루어져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점은 건축미학에 대한 인식과 비평세대의 단단한 틀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저널의 신생도 큰 몫을 담당하였고, 경제적 성장은 도시를 채우는 건물의 높이로도 알 수 있을 만큼 건축의 물량적 신장이 크게 도래하였었다. 올림픽을 치른 저력 또한 가세하여 세계시장의 일면을 옮겨온 듯한 느낌을 들게 하였다. 포스트 모던의 쟁점이 뜨거웠던 만큼 그 충돌적 사고에 의한 표질감을 나타내는 형식들이 만연하게 되었다. 점진적인 개혁의 올바른 정신을 잊어버린 파대 망상의 사고가 부른 기형의 신도시들, 일률적인 슬라브 블록의 Apartment들을 산재하게 남겨 놓으면서 쓰러지는 거대한 몸집의 건설회사들, 그 전초를 마련한 시대였다.

다가를 재앙을 아는지 모르는지 게걸스레 번식하였던 불신의 초상들이 번지르하게 치장한 시대의 끝에서도 기대는 새로운 세기의 준비로서, 또한 변혁을 꿈꾸는 세기말 징후의 벨 에포크를 몽상하며 각자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다듬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합집산(離合集散)의 시대

두 김으로 불려지던 거장 건축가의 작고이후 많은 젊은 새로운 세력권의 건축가들이 운집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독립이란 매력적인 환경이 군소 설계집단들의 양산을 가져왔고, 자신의 언어로 구축된 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스스로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들을 몰고 나갔다. 커다란 우산의 짐스러움을 벗어나 속속 자신만의 환경으로 움직여 나갔다.

가장 눈에 띄는 운집은 90년대 초반 4.3그룹이란 이름으로 결성된 건축가 모임들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체

로 젊은 건축가들로 그간 저널을 통해서나 여타의 활동들로 지명도가 있는 건축가 14명이 모이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스스로가 평가하고 자리 매김을 하면서 동시대건축의 정신에 대한 공감과 새로움에 대한 탐색으로 완만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이들은 92년 12월 동송동 안공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세기말의 문을 열었다. 전시의 개념도 종래와는 다른 조형성을 자신의 건축적 어휘와 맞춰 새로움을 자아냈다. 이들의 전시에 대한 이후의 평가는 다소 냉소적이어서 동질의 언어가 없다는 점과 뚜렷한 집단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듯 했다. 명분과 현저한 지표에 대한 제시면에서 전시는 분명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해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결성이었고 모임이라면 처음부터 대단한 이상을 지녀 사업구상부터 꿈꾸던 여타의 모임들과는 성격부터가 달랐고, 이는 4.3만의 독특한 겸손과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그 개성과 의식에 집중케 된다.

이들이 던진 메시지는 작게는 수확중인 많은 젊은 건축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크게는 이들의 비집단적 소명의식이 건축계의 전반에 소위 새로운 정신성을 담지하고자 함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쇄신을 위한 건축운동

쇄신을 가장 큰 염원으로 결성된 운동이 확산되어 청량제 같은 처방이 시작된 '건미준'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이미 구조적 개혁에 대한 몰두에서 집권의 이상만을 예정하던 기존의 모든 체계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건축운동이었다. 건축계의 쇄신과 정화작업을 요구하던 젊은 건축가들은 과정상에서 중진의 파위를 얻어야 했고, 대대적인 힘을 의식한 모임은 기득세력에 동조를 구해 모임은 분명한 이상을 지닌 텍스트를 배포하면서 고루 스며들었다. 정당한 팻말을 거절할 수 없는 계몽차원에서 '건미준'의 인장은 면죄부처럼 달리게 되었다. 처음의 기세라면 자정을 거친 후에 대대적인 실천이 따랐을 것인데 이미 문제를 느낀 소수 집단은 이러한 인장이 필요치 않는 상황이었고, 정화를 요하는 집단은 이 마크라는 새 건축운동 인장이 우산이 되어 주었다. 스스로

거대한 자기막을 쳐버린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시의적절한 선언과 행동강령들은 봄비처럼 여러 곳에 스미어 들어 보이지는 않았으나 곳곳에서 해갈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이 땅에 굳건히 서는 건축가로서 쇄신과 자정의 목소리를 담은 건축가들의 건축운동은 건축교육과 행정쇄신 면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다양한 명칭들을 지닌 유사한 정의 집합들 '새건협', '건발협', '민건협' 등 모두가 건축의 정의구현을 위해 일어난 건축운동의 모체들로서 세기말의 변혁정신과 상통한 면을 지닌다. 이들이 건축가들의 권익보호란 미명하에 이루어진 이 편협한 이미지를 스스로 벗을 수만 있었어도 좀 더 장기화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변화를 겨냥한 표출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컸음으로 여러 시도들은 정리화되어 나타났다. 가회동 삼청동 일대가 오랫동안 한옥 보존지구로 묶여서 그 제한 때문에 잦은 입씨름을 벌이다 결국 풀리게 되자, 이 지역에는 그간 못 다한 설움에 보상이라도 하듯 우후죽순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건축성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비교적 보존의사는 지니고 있으나 개발성향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된 가회동 11번지 일대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련의 건축가들이 솔선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다. 도시의 집합주거체계에 대한 실험적인 계획으로 제안이 이루어졌고, 복촌마을은 축제분위기였다. 한옥으로서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점까지 왔고, 그 이상을 보상해야 하는 현대건축의 익명성은 낯설기도 했으나 기존의 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체계로 개개의 Unit Plan을 완성시켰고, 전체로서는 공동체로서의 위상, 집합체계 등의 주제를 동반하고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의미를 지닌 기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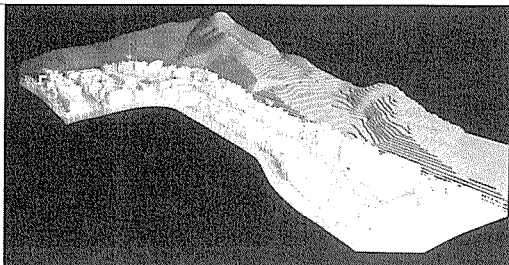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후원한 분당신도시 주택설계 전시회 및 심포지엄이 새로운데 대한 징표였다고 보여진다. 21인의 작가가 선정되었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작가에 의해 계획, 설계되어 발표

및 전시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주거문화'라는 주제로 동시대를 대표하는 주거의 표상과도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마치 슈트트가르트의 Weissenhof Siedlung처럼 군락을 이루는 주거문화의 첨병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입자를 찾지 못하는 진열장의 상품처럼 저마다 강한 건축적 사고와 조형의 지, 한국주거문화를 쇄신하려는 의사 등을 담고 있으면서도 선뜻 손에 넣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어 한동안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도 건축가의 사회현실에 대한 참여와 대중의식의 직접 수렴, 작가적 고민의 표출, 주거해석과 한국성의 표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주거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부상하게 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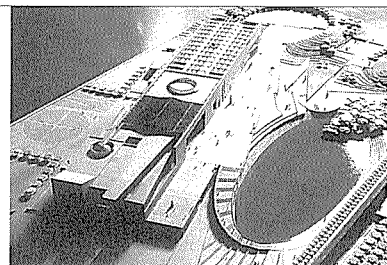
두 개의 매우 폐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골프 클럽하우스 내의 쉼터를 4.3그룹의 인원 절반정도가 참여하여 각기 자신의 언어를 함축한 이미지가 강하게 노출된 계획을 하여 지상전을 가진 것과 대학교 강사로 구성된 조합에 그들만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거를 계획하게 된 것, 이미 일본의 Nexus World란 주거군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이후 이 장르의 주거계획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졌다. 수도 없이 학생과 건축 실무자들이 Nexus World를 관찰했고, 상당 수의 해외건축가들이 자신의 언어로 구축한 건물들이 이루어진 후쿠오카의 Nexus World와 구마모토의 Art Polis는 지금도 손쉽게 많은 건축가들의 체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 장소임에 틀림없다.

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하계건축학교'가 개설되었고, 도시, 건축, 장소의 문제에 집중하여 활동적인 건축가들과 학생들이 어우러져 뿜어내는 열기는 커다란 건축수학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경기대에서는 국내 최초로 디자인 디렉터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건축전문대학원으로서의 교육적 발전을 가져왔다.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Workshop, 디자인캠프 등이 열렸고, 많은 해외의 건축가들이 이 땅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건축교육의 기존 모드를 바꿔버린 현상은 SA, 서울건축학교가 결성되면서부터이고 그야말로 변혁의 새바람은 이곳에 모인 젊은 건축가와 중진의 건축



분당신도시 주택설계 종합 배치도 (1993)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현상설계 당선작 (1995/정림건축)

가들로 인해 생겨났다. 날이면 날마다 펼쳐지는 축제와 같은 세미나와 강연,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도 없지 않으나, 교육의 재평가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조건에서 일탈한 과감한 면모 등은 종래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변화의 모색이 아니었나 싶다. 국내의 건축적 쟁점을 해외의 건축적 이슈와 더불어 조성된 재인식의 교육체계는 자율과 인식의 현실체계를 강화한 교육구조였다고 본다. 끊임없이 관류하는 의식의 집단성으로 많은 건축인이 고무된 환경이 바람직하기도 하나, 분명 학교라는 명제하에서는 자신의 모드를 지닌 건축인을 배출해야만 하리라고 여기기에 언젠가는 현실구도를 반영해야하는 숙제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념과 민족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로 일제의 잔재를 털어낸다는 차원에서 사라진 조선총독부(중앙청) 건물의 논란과 파란이 한동안 사회, 건축적으로 떠들썩하였다. 민족적 감정으로 일제의 잔재를 없애 버리고 싶어하는 역사의 지움과 결코 지워지지 않는 수치를 그 산 증거로서 간직하고자 하는 의식파와의 논쟁은 한동안 설왕설래했으나 지우고자하는 의식이 강해서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만다. 한강이 넘보이는 용산의 시민공원에 국립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가 등장되었고, 국내 초유의 국제적 현상공모가 이루어졌다.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건축가들이 대거 응모하였고,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결과는 국내의 우수한 설계집단이 제시한 안이 당선되어 국내건축의 위신을 세우게도 되었다. 그러나 당선안에 가해지는 비평의 내용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의문부호를 많이 나타내었다. 한 시대의 건축을 정리하는 단계로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기회였었다고 본다.

민족의 한풀이는 역시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에 재조명되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예술문화운동 작업전이 개최되었다. 해방, 역사, 생태계보존, 환경보호, 평화, 반전, 반핵 등의 지구환경보호개념과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예술의 혼으로 보여 주고자하는 주제하에 300예술인의 참여로 성대히 치루어졌다. 건축계에서도 6점의 작품이 주제를 상징하는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참가의사를 밝힌 수만큼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게 하였다. 가벼움과 무거움, 신중과 재고 등의 갈등이 이러한 대중의식이 강한 전시회에서의 출품을 망설이게 했으리라 본다. 건축가들은 비무장지대의 이념이 본래의 의지대로 보존되기를 희구하는 제시로 대체로 자신의 조형의지와 이미지와 어우러져 구축된 오브제로 제시되었다. 관념과 허구의 이상으로 점철된 전시와 토론의 마당은 예술의 현실성이 자아낸 시대극처럼 인식되기도 했던 기록이었다.

이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세계EXPO93도 눈길을 끌었던 대중적 편향의 전람회였다. 짧은 순간 번쩍이는 기지로 이룩한 가상의 현실이 실현되었다. 이상도 있었고,

기교도 있었으나 참다운 정신이 빠져있는 장터 같은 분위기의 축제장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지쳐서 허탈해 하였다. 그렇게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가. 발들어 놓을 데가 없어 내용파악은 전혀 되지 않았던 소란장, 지금은 그 무거운 소음을 등에 진 채로 점차 녹슬어 가면서 죽어가고 있다. 축제의 Set를 위해 광분한 모습들의 시체가 준비해 있지만 적절한 준비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몸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바로 그 전해에 있었던 스페인 세비아EXPO를 기억하면서 분수를 알고 그에 대처했어야 했던 진중함이 결여된 우리의 EXPO에 다시 한번 아쉬움과 반성의 눈길이 가야 한다.

비판의 기록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기억이 사라져 가는 국내의 새비람과 비평을 선도하던 그룹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들의 쇠퇴를 아쉬워한다. '청년건축가협의회'(청년협)가 있었고, '건축비평동인', '건축평론동우회', '간향'으로 모인 비평가그룹이 있었는데 이중 '간향'만이 현재까지 그 의사를 '건축인'이란 잡지를 통한 저술활동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협'은 그들의 잡지 '청년건축 제5호'를 끝으로 쇠퇴해 갔으며, 건축언론의 활성화와 제도의 개선, 도시주거문제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모색을 시도하였다. 그들의 사회와 건축에 대한 관찰은 단지 운동이란 반체제의 혁신에 있지 않았고, 한국건축의 현실성에 도전하는 그 인식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강도 높게 진행시켰다. 민주화운동이 최선이었던 시대의 부조리극에 휘말린 현상이기도 했으나 그 하나 하나의 관심과 관련된 분야의 요청은 의미를 지니며, 동시대 건축의 분열된 사회상과 뒤버뀐 역할 등이 아쉽게 앙금으로 남겨지게 된다.

건축비평동인은 하나 같이 동시대를 이끄는 건축계의 주역들로 당시의 건축비평을 주도하지 않았나 싶다. 비평이론을 제시하였고, 한국건축비평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의사를 강하게 분출하여 저마다의 강한 어조로 비평의 말판을 다져가기 시작하였다. 미학이론과 건축역사의 배경, 서구건축이론 읽기 등으로 중무장한 동인들의 행보는 저널을 통해서 지대한 공적을 쌓았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등장했던 비평상도 '공간', '꾸밈', '건축과 환경' 등의 평론분야상이 있었고 상당수의 응모가 있었으나, 점차 그 수가 줄어들어 아예 중단되고 말았다. 건축비평문화의 쇠퇴, 이는 건축현실의 쇠퇴으로 이어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디자인 관련 분야의 혼용전문지로서 한동안 유지해 오던 '꾸밈'지를 통해 등단한 '평론동우회'는 그냥 만나도 좋은 그런 사이좋은 모임이 아닌가 싶다. 편집장은 자연 간사가 되는 그 모임을 지켜보는 것으로도 즐거운 시

질이 있었다. 90년 전까지 그들의 글은 국내저널의 말판에 수도 없이 등장했다. 이제는 대학에서 실무에서 새로운 판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리라 본다. '건축인 30대의 꿈'이란 '간향' 4집의 출간에서 간향동인들은 저력을 다시 과시하였고, 언젠든 새로운 글판의 구성과 기반을 조성하리라 여긴다. 뜻을 같이 하는 인적구성으로 엮어내는 월간지 '건축인 POAR'는 참신하다는 평으로만은 부족한 날카로움도 지니고 있다. 단지 공존의 마당에서 관련지어야 하는 인적관계의 나약함이나 그들을 비쳐주는 시각의 여림이 다소 센 구성을 갖게 된다면 하고 기대하면서 분명 90년대의 특출한 출생이 있음을 인정 아니할 수 없다. 국내건축비평의 턱이 낮은 데서 구분되는 단계를 넘어서는 단초들이 이러한 동인그룹들의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연속시키고 지속시킬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해외의 세미나가 국내에서 개최된 Anywise의 회합은 사실 서방G7의 제3세계에 대한 중재 이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국내의 연구관련 세미나와 말판의 수준이 잠시 이를 감동적으로 바라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시대 우리건축의 단체사활동과 각 과정들의 과제해결 및 반성이 부족한 시대상을 새삼 느끼게 해준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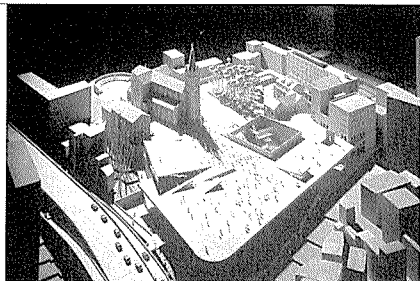
자생의 틀

우리는 많은 현상공모를 겪었고, 그때마다 쓸쓸한 기억과 에피소드로 막이 내려지는 것을 목도해 왔다. 이제는 불을 환하게 밝힌 제3청사의 현상과 웬만한 건축인에게 청량제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 공모전도 그 과정이 어찌나 쓰린지 왜 그렇게도 상채기를 내어야만 했는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억들이 되었다. 위용과 기세로 몸집을 드러내기도 전에 '전쟁기념관'은 그 권위주의적 형태, 이데올로기의 소치로 낙인이 찍혀 거센 비판의 반열에 서야만 했다. 청지기처럼 건축만을 생각하던 작가의 심정은 살피지지 않았고, 모두 마지막 건축이기를 바라고 규정지어 버렸다. 불모지에서 피는 꽃처럼 아니면 소각장에 핀 민들레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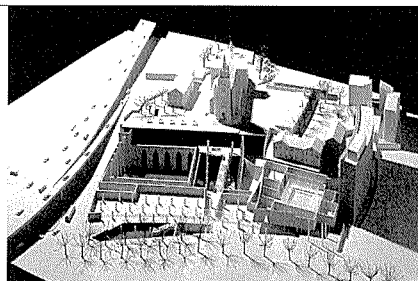
럼 '비평건축'이란 터무니없는 구성의 책이 등장한 것도 이 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 너무나 터무니없음에도 새록새록 쓰여진 그 담긴 이야기들이 말이 되어서 감을 느낀다. '지역성의 향방과 그 발견'이란 전시회에서도 '13인의 작가론'이란 책에서도 전하려는 메시지가 투박하게 전달되어져 온다. 한국의 건축에서 새 도면을 찾겠다는 의지, 새 말판을 찾겠다는 의지가 결코 모자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다가온다 해서 한국의 내일의 건축이 크게 바뀔 리는 만무하다. Electronic Media의 힘을 얻은 젊은 새내기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밤새워 겪은 서방의 사고가 아무리 지대하다해도 흠먼지 날리는 건축의 판세가 급격히 달라질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나의 것에서 출사한 것인지 구분이 가야 하리라 본다. '자생의 틀', 건축대전의 한 면모를 달리 해보고자 했던 초대작가전의 주제는 늘 향유하던 건축의 체험을 달리해 본 것이라 보인다. 자생,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힘은 시대의 안과 밖을 윤색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 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세기말의 징후가 다시 압제로 찾아든 시기말. 조용한 변화, 자생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 공모전 우수작(유길안)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 공모전 우수작(이종상안)